

호캉스·수제맥주·한강...도심 속 힐링 떠나요

방역 안심 4·5성급 호텔 많아
주변엔 맛집·레저공원도 즐비
문래창작촌 뉴트로 카페 일품
선유도·여의도 한강공원 볼만

‘어디로 갈까.’ 해마다 휴가철이면 하던 고민인데 올해는 그 강도가 각별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 등 어디를 가든 안전과 예방이 최우선시 되면서 혼행이든, 가족여행이든 선택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냥 집에 있자니 그건 좀 억울하다. 이쯤에서 이런 고민에 대한 제안 하나. 멀리 떠나는 대신 인근 호텔에서 휴양을 하는 ‘호캉스’는 어떨까. 요즘 호캉스는 방역과 예방을 철저히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세운 ‘안심비’가 화두다.

서울의 여러 자치구 중 영등포 지역은 특히 ‘안심비’ 높은 호텔들이 꽤 많다. 여의도를 중심으로 콘래드 서울, 글래드 여의도, 켄싱턴 여의도,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 서울타임스퀘어,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메리어트그레이트브 아파트먼트 서울, 더 스테이트 선유 호텔 등 여유로운 호캉스에 좋은 4~5성급 호텔들이 많다. 특히 여의도는 산책과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원이 가깝고 오피스 빌딩 곳곳에 맛집도 많아 도심 호캉스에 최적지다.

●뉴트로 맛집과 예술이 공존...문래창작촌
전철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거대한 용접 마스크와 망치 조형물을 만난다. 이곳이 문래창작촌의 시작점



영등포 문래창작촌의 대표적인 핫 플레이스 중 하나로 방문객들의 인증샷 명소로 사랑받는 수제맥주&와인바 올드문래. 한강을 조망하는 매력적인 야경 덕분에 데이트 명소로 인기 높은 여의도 콘래드서울 호텔의 9층 루프탑 바 버티고, 여의도 오피스 빌딩가에 있는 평양냉면의 명소 정인면옥의 냉면(왼쪽부터 시계방향). 도심서 간편하고 1박2일 일정으로 호캉스 여름휴가를 보내려는 이에게 영등포는 다양한 매력이 있는 명소다.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이다. 원래 철강공장이 밀집했던 지역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이전한 뒤 대학로 등지에서 활동하던 젊은 예술가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텅 빈 철강소 골목에 사진갤러리, 공연장, 공방, 회화 작업실, 음악 연습장, 영화, 연극 등의 예술 공간이 들어섰다. 최근에는 뉴트로 콘셉트의 레스토랑과 카페, 베이커리, 펍 등이 부쩍 늘어났다. 그중 수제 맥주를 파는 카페 올드문래는 이곳의 대표 핫 플레이스다.

●선유도공원부터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한강의 섬, 선유도공원은 옛 정수장을 재활용한 국내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공

원이다. 수질정화원, 수생식물원, 녹색기둥의 정원, 시간의 정원, 선유도이야기관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수장 시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물을 주제로 한 문화 공간을 조성했다.

여의도공원은 주변에 국회의사당, KBS, 금융감독원, 증권사 등이 둘러싼 서울의 ‘센트럴 파크’다. 출입구가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변호순대로 걸으면 공원을 한 바퀴 돌 수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은 여의도를 둘러싼 한강변 공원이다. 5호선 여의나루역 2·3번 출구로 나오면 연결된다. 북쪽 한강변에 피아노물길, 물빛광장, 수상무대, 수상분수, 빛의폭포, 페스티벌랜

드, 수변 산책로, 천상계단, 해넘이전망대, 서울색공원 등의 볼거리와 휴식공간이 있다.

●정인면옥·진주집·송죽장...놓치면 억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와 이웃한 정인면옥은 1972년에 개업한 평양냉면 전문점이다. 잡맛없이 맑고 깊은 육수가 인상적이다. 여의도 국제금융로6길 맨하탄빌딩 지하1층 진주집은 여름철 콩국수가 인기다. 콩죽처럼 걸쭉한 국물이 매력이다. 영등포역 근처의 송죽장은 화교가 운영하는 50년 역사의 중국집으로 고추장뽕의 명성이 높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날씨와 생활

22일(수)

서울	30/20	인천	30/20	수원	30/30
	23 30		23 27		22 29
춘천	30/20	강릉	30/30	청주	60/70
	22 33		23 31		23 29
대전	60/70	전주	70/80	광주	80/90
	23 28		23 27		22 26
대구	70/80	울산	70/80	부산	80/90
	22 26		22 26		22 26
창원	80/90	제주	60/6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2 27		24 28	날씨	최저 최고기온 C

☀ 해돋이 05:28 해질 19:49 🌙 달돋이 06:41 달지기 21:14

산 날씨	
북한산	21/31 내장산 22/26
설악산	22/28 무등산 23/26
오대산	22/30 주왕산 19/25
속리산	21/27 지리산 22/28
계룡산	22/29 한라산 24/27
바다 날씨	
인천출도	23/27 안면도 꽃지 22/27
제주도	22/29 변산반도 22/25
경포대	23/31 거문도 22/25
속초	21/27 해운대 22/26
대천	22/29 제주도 24/28

미세먼지	
서울	26 좋음 대전 17 좋음
부산	22 좋음 경기 26 좋음
대구	15 좋음 강원 15 좋음
인천	27 좋음 전북 16 좋음
광주	10 좋음 제주 18 좋음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377호

발행인 이인철	편집인 이성훈	편집국장 연제호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경제산업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2020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 청주본선 성료
18일 청주시 서원구 CJB 미디어센터에서 ‘2020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의 일곱 번째 지역대회인 청주시 지역 본선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디노블이 주관하는 ‘2020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대회’는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업적과, 결연선 내조한 소헌왕후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널리 알리기 위한 대회다. 본 행사는 20세와 29세 남녀 모델을 선발하는 ‘세종대왕 소헌왕후 선발’ 및 19세 이하 남녀의 나르샤, 30세부터 45세 사이의 남녀 모델을 선정하는 송아리, 46세 이상의 남녀가 참가하는 모도리 등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최종 본선 대회는 오는 8월 22일 그랜드 워커힌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에버랜드, ‘한여름 밤의 반딧불이 체험’ 연다

매일 오후6시 선착순 무료 진행

용인 에버랜드가 ‘한여름 밤의 반딧불이 체험’(사진)을 8월30일까지 매일 진행한다.

도시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청정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가 매일 약 1만 마리씩 반짝이는 모습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다. 반딧불이 빛으로 글자를 읽는 형설지공(螢雪之功) 체험, 반딧불이가 불빛을 내는 원리, 수조 속 애벌레를 학습하는 반딧불이 한살이 과정 견학도 있다. 포시즌스가든 옆 차이나나 레스토랑 1층에서 매일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선착순 무료로 진행한다.

강의 심도를 높인 ‘반딧불이 생태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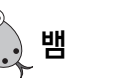


교실’도 올해부터 시작한다. 8월 한 달간 매주 주말과 휴일에 진행하며 전문 도슨트(해설사)가 반딧불이 생태 특징을 설명하고 사육과정을 공개하는 등 40여분간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박경희의 운수 좋은 날

 쥐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여우비	 소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먹구름	 호랑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파도	 토끼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패청	 용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비바람	 뱀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신기루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육구분술, 잡재력발휘의 날이고, 건강과 금전에 대한 변동이 이루어진다. 잘못되면 금전적 낭비가 따른다. 괴로움이 크겠지만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이로운이 있다. 현재는 재능과 능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입장도 뚜렷하지 못하다. 고난 속에서 연마된 실력은 마침내 욕망으로 빛나게 될 것이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성급한 생각으로 부동산을 속아서 비싼 값에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잘못써서 재산을 날리는 경우 등 실수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다. 감언이설에 조심한 한다면 일을 벌이고 뜻을 펼치는 대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며 최선을 다하라. 교섭과 거래에 있어서는 강경책보다는 온화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호랑이가 호랑이를 만났으니 서로 잘났다고 경쟁하는 형상이다. 따라서 인간관계보다는 일에 집중하라. 기회를 얻어 공업을 이루는 운이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만사형통할 운세이다. 그러나 매사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겸손하고 온화하게 생활하여 적을 만들지 않도록 하라. 오늘은 망신날이다. 망신이 좋게 작용하면 수익의 증대이다. 수익이 생겼다면 빨리 손을 떼고 그것을 지켜라. 직장인은 능력을 인정받게 되지만 근처에 적이 도사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하고 진실 되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구직자는 곧 취업이 되겠으니 노력하라. 오늘은 역마의 날이다.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할 수가 없다. 가능한 한 먼 거리가 좋다. 미리 저리 돌아다니면서 하는 업무가 좋다. 지출을 억제해야했다. 낭비벽이 생김으로써 나중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될까 두렵다. 또한 사치는 금물이니 질투를 없애야 하고 주변을 살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도우면 후일 그 보답이 있을 것이다. 오늘은 겁살일이다. 욕심이 많은 날이다. 여성의 경우 남자 조심하라.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말	행운색:청색 길방:동 오늘의 마음:노을	 양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맑음	 원숭이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해·번개	 닭	행운색:검정 길방:북 오늘의 마음:싸늘	 개	행운색:적색 길방:남 오늘의 마음:패청	 돼지	행운색:흰색 길방:서 오늘의 마음:진눈깨비
응답질에서 흐르는 가냘픈 물줄기의 형상이다. 정신적으로는 어둡고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이니 극단적 마음이나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나 업무적으로는 바빠지고 밝은 미래가 보이는 날이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공연히 분주한 날이다. 말은 장성이다. 장성이 지살을 만나면 파견근무이다. 근무의 결과가 좋다. 움직여라.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거의 성취되겠다. 먼 곳의 여행은 급한 일이 아니면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손재수가 있으니 도난에 주의하고 도장과 문서를 조심하라. 오늘은 망신살에 귀문살이다. 망신일에는 실수를 자주 한다. 이로 인해 내외적으로 격정거리가 생길 수 있다. 침착하게 일에 임하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어딘가에 허술한 면이 있으니 찾아서 보강하길 바라며, 도움을 청할 일이 있거나 자문을 구할 일이 있다면 여성에게 부탁해 보라. 오늘은 역마일이다. 지살과 역마의 만남이다. 움직이는 날이다.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서두르지 말라.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오늘은 겁살일이다. 장성이 겁살을 만났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운 또는 쿠데타의 기질을 갖게 된다.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오늘은 지살일이다. 화제가 지살을 만난 날이다. 학업, 연구, 문학,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았다. 때때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때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망신살 일이다.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자칫 망언이나 허풍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일만 커지게 된다.											